

# 손흥민, 벤키니·호날두와 함께 FIFA가 뽑은 '빛나는 7번'



손흥민



벤키니



호날두

한국 축구 대표팀의 '에이스' 손흥민(30·토트넘)이 국제축구연맹(FIFA)이 인정한 역대 월드컵을 빛낸 '대표 7번'에 포함됐다.

FIFA는 13일(현지시간) 카타르 월드컵 개막 'D-7'을 맞아 소셜 미디어에 '월드컵 개막까지 7일 남았다'는 글과 함께 등번호가 7번인 주요 선수들의 사진을 모아 올렸다.

국내 팬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단연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데이비드 벤키니(잉글랜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알렉산드로 델 피에로(이탈리아) 등 세계 축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7번 달고 멕시코전·독일전서 한 골씩 터뜨려

이탈리아 델 피에로·벨기에 더브라위너·스페인 비야 등과 어깨 나란히

구계를 평정했던 선수들과 함께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했다.

손흥민은 자신의 첫 월드컵 본선 출전이었던 2014년 브라질 대회에는 9번을 달고 나갔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는 7번으

로 출전했다.

그는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알제리와 경기에서 한 골을 넣었고, 러시아 대회 때는 멕시코전과 독일전에 한 골씩 터뜨렸다.

특히 2021-2022시즌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을 넣어 득점왕에 올라 '대표 7번'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업적을 남겼다.

FIFA가 인정한 '대표 7번'에는 현역 선수로 손흥민과 호날두 외에 케빈 더브라위너(벨기에), 앙헬 디마리아(아르헨티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다비드 비야(스페인), 디에고 데사(프랑스), 이반 라키티치(크로아티아) 등도 대표적인 '7번'으로 등장했다.

/연합뉴스



태극전사 카타르 입성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4일 카타르 수도 도하의 하마드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대표팀은 오는 24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우루과이와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치른 뒤, 가나(28일 오후 10시), 포르투갈(12월 3일 오전 0시)과 맞붙는다.

/연합뉴스

## 독일 트랜스퍼마켓 "벤투호 최약체 그룹"

### 오타, 한국 우승 확률 0.2%·16강은 29.1%

전 세계 선수들의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독일의 축구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켓이 카타르 월드컵 출전팀 중 벤투호를 최약체 그룹으로 분류했다. 트랜스퍼마켓은 14일 인스타그램에 본선 32개국을 5개 그룹으로 분류한 그래프를 올리면서 이용자들에게 '동여하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우승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서 한국은 나머지 9개국과 함께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음' 그룹에 속했다.

개최국 카타르를 비롯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카메룬,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폴란드, 캐나다 등이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이 이보다 높은 4번째

그룹인 '기적이 필요함'에 속했다. 웨일스, 미국, 스위스, 멕시코, 모로코, 세르비아, 튀니지와 함께 벤투호의 조별리그 상대 가나도 이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이 위로 사실상 다크호스로 평가받는 '언더독' 그룹에는 벨기에, 크로아티아, 덴마크, 세네갈과 조별리그 첫 경기 상대 우루과이가 포함됐다.

벤투호의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 포르투갈은 우승 가능성을 점칠 만한 출전국은 '도전자' 그룹으로 묶였다.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잉글랜드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최고 단계인 '우승 후보'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세 팀만이 선정됐다.

스포츠 통계 전문 업체 오타도 이 세 팀을 가장 우승 확률이 높은 팀으로 꼽았다.

지난 13일 발표한 월드컵 전망에서 오타는 브라질이 우승 확률(16.3%)을 가장 높게 봤고, 아르헨티나(13.1%), 프랑스(12%)가 뒤를 이었다.

아시아 국가들의 우승 확률은 의외로 개최국 카타르가 0.3%로 가장 높았고, 한국과 일본이 0.2%, 호주와 이란 0.1%, 사우디아라비아 0%로 전망했다.

오타는 우리나라가 H조에서 1위를 차지할 확률은 9.4%, 2위에 오를 가능성은 19.7%로 예상했다.

1, 2위 확률을 더한 16강 전망은 29.1%로 가나(26.1%)보다 근소하게 높았지만, 포르투갈(82.6%)·우루과이(62.2%)에는 크게 못 미쳤다.

결국 객관적인 전력상 H조에서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1, 2위로 16강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 셈이다.

/연합뉴스

## KBO '샐러리캡' 총 114억 2638만원

### FA '큰 손' KIA, 어떤 계산 할지 관심

스토브리그 새로운 키워드로

'샐러리캡'이 스토브리그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올랐다.

KBO가 14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유지할 샐러리캡(선수 지급 금액 상한액)을 발표했다. 이 기간 KBO리그 각 구단에 적용되는 샐러리캡은 총 114억 2638만원이다.

KBO는 지난 2020년 1월 21일 리그 전력 상향 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샐러리캡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2021, 2022년 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소속선수 중 연봉(연봉, 옵션, 실지급액, FA 연평균 계약금 포함) 등 상위 40명의 금액을 합산한 구단의 연평균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샐러리캡으로 설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샐러리캡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며, 이후 상한액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될 수 있다.

샐러리캡을 초과해 계약하는 구단은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2회 연속해 초과할 때는 초과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제재금 납부와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3회 연속하여 샐러리캡을 넘기면 초과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내야하고,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하게 된다.

샐러리캡이 적용되면서 각 구단은 스토브리그

에 분주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게 됐다. 특히 FA 영입을 노리는 경우 머리가 복잡해진다.

2022년 연봉 총액 1위는 '통합우승'을 이룬 SSG 랜더스로 248억7512만원이다.

샐러리캡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샐러리캡 도입에 맞춰 '돌아온 에이스' 김광현의 올 시즌 연봉을 81억원으로 책정했고, 다년 계약을 한 선수들의 첫 시즌의 연봉을 높게 책정하면서 내년 시즌 연봉 총액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어 삼성 라이온즈(127억6395만원), NC 다이노스(124억8634만원), KIA 타이거즈(115억 6339만원) 순이다. 이들 팀들의 연봉 총액이 샐러리캡을 넘어서 만큼 제재금을 내거나 연봉 총액을 줄여야 한다.

KIA는 올 시즌 FA 최대어로 꼽혔던 나성범을 계약 기간 6년에 계약금 60억원, 연봉 60억원, 옵션 30억원 등 총 150억원에 영입했다. 이어 양현종과는 계약 기간 4년에 계약금 30억원, 연봉 25억원, 옵션 48억원 등 총 103억원에 계약을 했다.

KIA도 샐러리캡 대비는 해냈다.

올 시즌 팀을 떠난 선수 중 최대 연봉자인 나지완의 연봉이 1억 5000원으로 이에 대한 감소분은 많지 않지만, 나성범과 양현종의 연봉을 계약 첫 해인 올 시즌 가장 많이 책정하면서 내년 시즌 두 사람의 연봉 감소분이 상당히 반영된다.

대신 팀 성적은 9위에서 5위로 상승하면서, 비 FA 선수들의 연봉 총액은 증가할 전망이다.

FA 시장에서 '큰 손'으로 통하는 KIA가 샐러리캡을 놓고 어떤 계산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넬리 코다, LPGA 펠리컨 챔피언십 우승

2020 도쿄 올림픽 여자 골프 금메달리스트 넬리 코다(미국)가 화려하게 부활했다.

코다는 1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벨에어의 펠리컨 골프클럽(파70)에서 열린 LPGA 투어 펠리컨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4타를 몰아쳐 3라운드 합계 14언더파 196타로 우승했다.

렉시 토폴슨(미국)을 1타차로 따돌린 코다는 작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1년 만에 LPGA투어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4승을 쓸어 담고, 도쿄 올림픽 금메달까지 따내 최고의 시즌을 보냈지만, 이번 시즌 초반 혈전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하느라 힘든 나날을 보낸 끝에 거둔 값진 우승이다. 코다는 지난 2월 혈전증 진단을 받았고 닥 달가량 필드를 비웠다.



넬리 코다

대회 2연패에 통산 8승째다.

코다는 15일 발표하는 주간 세계랭킹에서도 1위 복귀를 예약했다.

/연합뉴스

## 빙속 김민선, 월드컵 여자 1000m 은메달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단거리 간판 김민선(23·의정부시청)이 한국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1000m에서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김민선은 13일(한국시간) 노르웨이 스타방에르에서 열린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 여자 1000m 디

비전A(1부리그)에서 1분15초82의 성적으로 네덜란드 유타 레이르담(네덜란드·1분15초61)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9조 아웃코스에서 스타트를 끊은 김민선은 첫 200m를 전체 2위 기록인 17초98에 통과한 뒤 안정적인 자세로 레이스를 이어갔다.

200~600m 구간은 27초78, 600~1000m 구간은 30초06에 주파했다.

한국 여자 빙속 선수가 월드컵 여자 10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자 5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빙속 여제' 이상화도 월드컵 대회 여자 1000m에선 동메달만 2개를 땀다. 김민선은 전날 여자 500m 우승에 이어 여자 1000m에서도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차기 올림픽 메달 후보로 우뚝 섰다.

/연합뉴스